

4홈런 13득점...LG '막힌 혈' 뱅 뚫린 날!

8G 4홈런 그쳤던 LG 단 한경기서 4방 유강남, 김정현 슬라이더 공략 투런 채은성·김현수·정주현 '시즌 1호포' 전날 2득점 굴욕 씻고 선발전원안타

KBO리그 경기결과 ▶ 14일	
잠실	KT 1 : 3 두산
고척	LG 13 : 2 키움
인천	NC 3 : 0 SSG
대구	한화 6 : 2 삼성
광주	롯데 2 (연장 12회말) 3 KIA



LG 김현수(오른쪽)가 14일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린 키움과의 원정경기에서 5회초 중월 1점 홈런을 터뜨린 뒤 김호 1루 코치(왼쪽)와 주먹을 마주치며 기뻐하고 있다.

시즌 1호 홈런이 쏟아진 경기였다. LG 트윈스는 14일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린 키움 히어로즈와 시즌 2번째 맞대결에서 4명의 타자가 4홈런을 합작한 덕분에 13-2 대승을 거뒀다. 선발 라인업에 이름을 올린 LG 타자들 모두가 안타를 때렸다. LG의 시즌 첫 번째 선발전원 안타였다. 그야말로 막힌 '혈'이 뚫린 날이었다. LG는 13일 키움전에서 2-8로 패했다. 6안타로 고작 2득점했다. LG 류지현 감독은 타선이 키움의 새 외국인투수 조쉬 스미스를 공략하지 못한 것에 큰 아쉬움을 드러냈다. 그는 "경기 전 스미스의 투구 영상을 봤을 때 우리 팀의 공격력이 '이제는 살아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다. 하지만 변화구 공략에 실패해 상대에게 유리한 볼카운트를 내준 게 컸다"고 되돌아봤다.

류 감독의 자극이 통했던 것일까. LG 타자들은 14일 모두 펄펄 날았다. 일단 장타로 포문을 열었다. 포수 유강남이 2회초 무사 2루서 키움 선발투수 김정인의 시속 134km짜리 슬라이더를 공략해 좌월 2점홈런을 뽑았고, 이어 채은성(3회)~김현수(5회)~정주현(6회)이 솔로아치를 하나씩 그렸다. 유강남을 제외한 세 타자는 모두 시즌 1호 홈런을 신고했다. 타격 컨디션이 좋지 않았던 채은성과 김현수가 대표로 막힌 '혈'을 뚫어낸 게 LG로선 무척이나 고무적이다.

홈런으로만 점수를 뽑아 공격 연결에서 아쉬움을 보였던 타선은 7회초 공격에서 빅이닝을 만들며 폭발했다. 4번타자 이형종부터 시작한 공격이 타자일순한 뒤 7번타자 유강남이 되어서야 끝났다. 상대 수비실책이 섞인 이닝이었지만, 필요한 순간 타점을 만든 것은 LG 입장에서 만족스러운 성과였다. 하위타선의 유강남과 오지환이 적시타를 터뜨렸고, 2번타선에서 침묵 중이던 로베르토 라모스도 상대 수비의 실책성 플라이로 행운의 2타점 적시타를 얻었다. LG는 7회에만 대거 7득점에 13-0으로 달아나며

승부에 쐬기를 박았다. 마운드에서도 믿음직한 모습이 보였다. 선발등판한 정찬현은 6이닝 2안타 3삼진 무실점으로 호투했다. 이어 마운드에 오른 진해수~송은범~이찬혁도 제 몫을 다 했다. 개막 이후 다소 답답한 공격력을 이어가던 LG가 이날만큼은 시원한 모습을 보였다. LG가 이날 경기 전까지 8게임에서 뽑아낸 홈런은 4개였다. 하지만 이날 단 한 경기에서 4개의 홈런을 쏟아내며 키움 마운드를 초토화했다.

고척 | 장은성 기자 award@donga.com



김원형 감독 (왼쪽)과 추신수 (오른쪽)

“겸손한 추신수 팀에 녹아들었다” 김원형 감독, 적응력에 엄지척!

“넌 메이저리거 같지가 않다.” 부정적 의미가 아니다. 기량은 물론 몸을 만드는 자세, 경기를 준비하는 태도는 KBO리그에서 흔히 볼 수 없었던 ‘빅리그 스타’ 그대로운데 마인드는 겸손함 그 자체다. 팀에 합류한 지 한 달, 추신수(39·SSG 랜더스)는 수년간 KBO리그에서 똬 선수처럼 낮가림 없이 겸손하게 팀에 녹아들었다. 추신수는 13일까지 8경기에서 타율 0.185, 1홈런, 2타점으로 다소 더딘 페이스를 보이고 있다. 물론 어디까지나 예상이 가능했던 대목이다. 추신수는 2월말 SSG와 계약했고, 3월 중순까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지침대로 자가격리를 소화했다. 낯선 환경에 적응해야 한다는 부담감 속에 몸을 만드는 것이 예년에 비해 더뎠다. 김원형 SSG 감독도 개막을 앞두고 “10경기 정도는 더 필요할 듯하다”고 내다본 바 있다. 하지만 기량 외적인 부분에선 이미 적응을 끝마쳤다는 판단이다. 14일 인천 NC 다이노스전에 앞서 김 감독은 “후배들이 정말 잘 따른다. 매일 일찍 출근해 자기 루틴대로 똑같이 훈련한다. 또 선수들에게 좋은 이야기도 자주 하는 걸로 알고 있다. 모범적인 생활을 하니까 후배들이 따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옆에서 보고 있으면 정말 친근하다. 전날(13일)에도 ‘나는 메이저리거에 있던 선수 같지가 않고, 여기 계속 있던 것 같다’고 했다. 정말 겸손하다. 시간이 지나면 바뀌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 느낌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추신수 정도의 커리어를 지닌 선수라면 기량은 언젠가 올라올 수밖에 없다. 이를 위해서 클럽하우스 적응이 더 시급한 일일지 모른다. 추신수는 팀 적응을 이미 마쳤다.

인천 | 최익래 기자 ing17@donga.com

편집 | 심승수 기자 sss23@donga.com

파슨스 데뷔전 승리...NC 5연승 선봉

SSG 상대로 5.2이닝 6K 무실점 투구수 108개...몸상태 궤도 진입

약간 더디게 합류했지만 지나간 경기보다 남은 경기가 훨씬 많다. 너무 늦지 않은 이상에야 데뷔 시점보다 중요한 것은 합류 후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였다. 웨스 파슨스(29·NC 다이노스)가 KBO리그 첫 단추를 깔끔하게 끼웠다. NC는 14일 인천 SSG 랜더스전에서 3-0으로 이겼다. 4회까지 SSG 선발 문승

원에게 퍼펙트로 묶였으나 5회초 4사구만으로 1사 1·2루 찬스를 잡은 뒤 강진성(1타점)과 김태균(2타점)의 연속 적시타로 3점을 뽑았다. 이날 유일하게 점수가 나온 이닝이었다. NC 선발 파슨스는 5.2이닝 3안타 2볼넷 6삼진 무실점으로 데뷔전에서 승리를 쟁겼다. 투구수는 108개. 포심패스트볼 최고 구속은 148km까지 찍혔고, 평균 구속도 145km를 꾸준히 유지했다. NC 외국인투수들 중 데뷔전에서 100구를 넘긴 것은 2013년 찰리 슈백 이후 최초다.



파슨스

포 심 패 스트 볼(57개)과 투심패스트 볼(10개), 슬라이더(21개)의 비중이 높았지만 오프 스피드 피치도 확실히 갖췄다. 특히 높은 곳에서 각도 크게 떨어지는 커브는 SSG 타자들이 좀처럼 타이밍을 잡기 어려웠다. 일반적으로 외국인투수는 개막 시리즈에 등판한다. 이 때문에 컨디션을 끌어올리는 과정에서 100구 이상 던지는 경우는 드물다. 파슨스는 다른 케이스다. 몸 상태가 더디게 올라오면서 개막 엔트리에 들지

못했기 때문이다. 1월 11일 NC와 계약한 파슨스는 비자 문제로 입국이 지연됐고, 2월 5일 한국행을 밟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자가격리까지 더해지며 2월 말에야 몸을 만들기가 시작했다. 3월 21일 시범경기 SSG전에서 3이닝 무실점으로 베일을 벗었지만 등판 후 어깨 염증으로 다시 심포가 찍혔다. 우여곡절 끝에 돌아왔고, 퓨처스(2군) 리그에서 2차레 담금질까지 거쳤다. 이듬해 NC 감독은 이날 경기 전 “파슨스는 투구 제한을 두지 않는다”고 했다. 몸 상태가 궤도에 진입했음을 의미했다. 그리고 파슨스는 결과로 증명했다.

인천 | 최익래 기자 ing17@donga.com

간편한 헤어칼라

순한결

1제, 2제가 하나로
1회 염색 한 달까지

(즉석 샴푸식 염색) **사은품과 2개월 무료 체험분을 드립니다.**

총 18Box 57회분
(본품 15box+사은품3box+무료체험분 3회분)

80%이상 자연유래 성분
1제, 2제가 하나로~

3분 만에 즉석염색,
샴푸와 트리트먼트가 한번에~

색상은 3가지로 점정색, 진한갈색, 자연갈색으로 사용자의 모발에 맞게 선택하여 더욱 멋진 염색을 연출해준다. 샴푸한 듯 은은한 향기와 빠른 염색시간 덕분에 출근 전에 즉석 염색, 대중사우나에서도 남을 의심하지 않고 걱정 없이 염색할 수 있다. 이번에 새롭게 출시된 “간편한 헤어칼라 순한결”은 본 품이 15박스, 추가 사은품 3박스, 무료체험분 1박스(3회분), 총 18박스를 59,800원에 품평 드리는 할인행사다. 또한 고객에게 신뢰를 드리기 위해 2개월 동안 사용 후 불만족 시 무료체험분을 제외한 18박스는 무조건 구입한 가격으로 100% 전액을 환불해주며 반품 시 택배비용만 소비자 부담된다.

머리만 감아도 염색이 절로~ (3분염색)

빠르고 쉬워요~

- 피우치를 절반으로 잘고 뒷부분을 빗거나 가위로 잘라준다.
- 겉머리 쪽-후머리 1제, 2제가 동시에 나온다.
- 감은 후 머리를 미끈하게 미끈하게 털어내고 물로 헹구면 염색 끝!
- 3~5분 뒤 미온수로 헹구면 염색 끝!

※ 머리에 비벼주면 즉시 검게 변하기 때문에 1회용 주방 비닐장갑을 착용하세요. 머리를 감을 때 피부는 잘 지워지지만 손톱에 묻은 염색은 잘 지워지지 않습니다.

옷, 알리지, 피부트러블, 눈 따가움 걱정 끝!
옷이 전혀 타지 않는 염모제 감이조아 칼라 염모제

1제, 2제를 각각 10분씩 발라 염색하는 옷타지 않는 10분염색 ‘감이조아’

알타이산성염색제인 10분염색을 추천합니다.

판매가격 : 69,800원
*신용카드 3개월 무이자, 일부 카드제외

※ 제품은 샴푸방식이 아닙니다. ■ 제조원 : 로위더스(주)

■ 제조원 : ㈜새콤코스메틱 ■ 판매원 : 대양라이프 **총18Box(57회분) 할인판매 59,800원** (카드 3개월 무이자, 일부 카드제외) 주문전화: 1544-0563 www.대양라이프.kr